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arron's: 금리 10월 동결 후 12월 추가 인상 가능성… 연준, 인플레에 고심
- WSJ: 경제 전문가 71명, 고금리 장기화 전망
- WSJ: 연준, 고금리로 AI 열풍 잠재울 수 있다

[미국 금융]
- JP모건: 금리·유가 상승에도 주식시장 강세 전망… AI·신흥국 주식 눈길

[중동 전쟁]
- Bloomberg: 이란, 호르무즈 해협서 선박 기관실 공격… 에너지 수송 리스크

[오일]
- Bloomberg: 브렌트유 111불 돌파…5개월 만에 최고치

[주택]
- Bloomberg: 미 미국 주택 착공 건수, 팬데믹 이후 최저치
- WSJ: 미 주택 시장은 부유층의 고급 주택만 고공행진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월마트, 멤버십 혜택 강화로 온라인 고객을 잡는다
- YahooFinance: 아마존, 연말 시즌 30만 명 채용… 전년 대비 20% 증원

[KMI 공급망 브리핑]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arron’s: The Fed Will Have to Raise Interest Rates More, Even If It Pauses in October
금리 10월 동결 후 12월 추가 인상 가능성… 연준, 인플레에 고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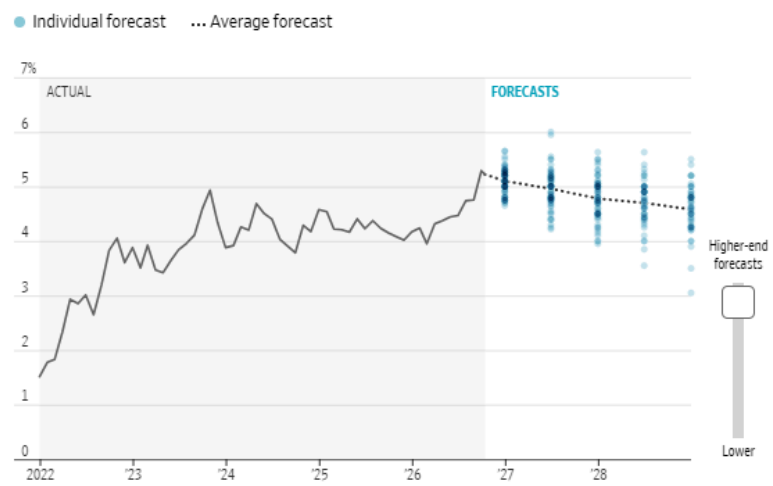
- 연준이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동결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지만, 수그러지지 않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 이르면 12월 추가 인상이 뒤따를 전망이다.
-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7% 올라 전월(3.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휘발유 가격 급등과 함께 근원 물가 역시 2.6%로 반등하는 등 물가 압력이 전방위로 퍼지는 모습이다.
- 연준 당국자들은 일단 경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사

WSJ: See What 71 Economists Told Us About Where Growth and Yields Are Headed
경제 전문가 71명, 고금리 장기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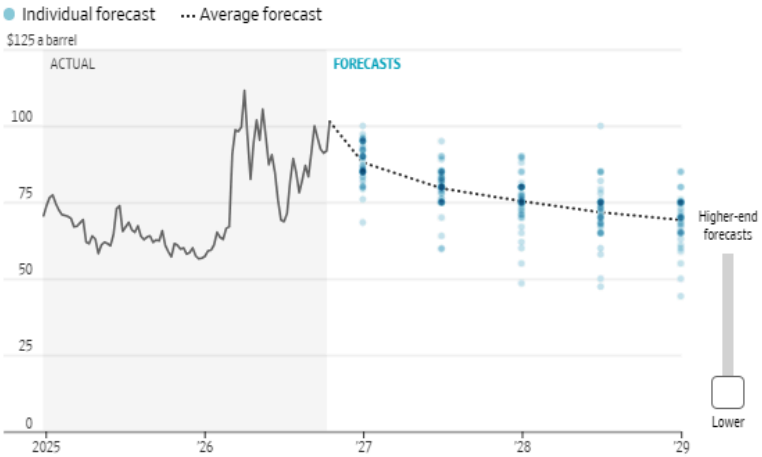
- WSJ 설문 결과, 경제전문가 71명은 미 국채 금리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 대출자와 정부의 이자 부담을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 10년물 국채 금리가 5.1%인 가운데, 응답자의 75%는 올말까지 5% 이상을 유지하고 33% 이상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견조한 성장에 따른 금리 인상과 재정 적자 우려가 원인이라는 것.
- 다행히 국제유가(WTI)는 2027년 말 배럴당 $75 수준으로 안정되고 물가상승률(CPI)도 2.3%로 낮아질 전망이다.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7월(2.0%)보다 오른 3.1%로 수정됐다.

10-year Treasury yield, monthly, with economists' forecasts



Note: For forecasts, darker shades indicate overlapping dots.
Sources: Tullett Prebon (actual); Wall Street Journal survey of economists (forecasts)

Crude-oil price, weekly, with economists' forecasts



Note: Actual data are futures prices for NYMEX West Texas Intermediate crude oil. For forecasts, darker shades indicate overlapping dots.
Sources: FactSet (actual); Wall Street Journal survey of economists (forecasts)



기사

WSJ: Yes, the Fed Can Kill the AI Boom
연준, 고금리로 AI 열풍 잠재울 수 있다

-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기술주 열풍을 막지 못할 것이라 장담했으나, 결국 연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버블은 붕괴했다.
- 오늘날 AI 시장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 Bill Ackman 등 투자자 일각에서는 압도적인 AI 기술로 얻는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도 AI 투자와 수요는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듯, 연준은 금리 인상을 통해 AI 열풍을 잠재우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

[미국 금융]

JP 모건: Expectations for Equity Gains Despite Duration Pain
금리·유가 상승에도 주식시장 강세 전망… AI·신흥국 주식 눈길

- 2026년 IMF/세계은행 방콕 가을 총회 투자자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투자자들은 금리와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강한 신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가을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증시의 큰 폭 상승을 점쳤으며 국채 금리와 유가 역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 정부의 재정 적자 누적은 장기 금리를 끌어올릴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지역별 격차를 보이면서도 무난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지정학적 분쟁과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인플레는 여전히 주요 부담 요소로 남아있다.
- 자산별로는 주식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낼 자산으로 신흥국 주식이 꼽혔으며, 선진국 주식과 원자재가 뒤를 이었다. 달러와 엔화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될 전망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높은 수준에 굳어질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며,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정상화를 예상하는 의견은 드물었다. 절반 가량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분쟁 위험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 인공지능 열풍은 실질적인 성과 단계로 진화했다.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생산성 향상과 실적 확인으로 이어지면서, 소프트웨어와 AI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센터, 전력·유틸리티 분야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한편, 위험 회피 심리로 금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지배적인 반면, 중국 시장과 사모 채권은 주류 투자 대상에서 외면받았다. 정치적으로는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며, 무역 갈등의 대대적인 격화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

기사

[중동 전쟁]

Bloomberg: Iran Strikes More Ship Engine Rooms in Ramp-Up of Hormuz Attacks
이란, 호르무즈 해협서 선박 기관실 공격… 에너지 수송 리스크

- 이란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 선박의 기관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공격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글로벌 에너지 수송에 위험성이 커졌다.
- 10월 초부터 2주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최소 23건의 피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최소 5건은 기관실이 직접 타격을 입었다.

- 기관실 공격은 화재와 동력 상실을 불러와 선박 운항을 중단시킨다. 이러한 타격 방식의 변화는 유조선 선복량을 압박해 석유 시장의 물류 차질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Rise to Five-Month High
브렌트유 111불 돌파…5개월 만에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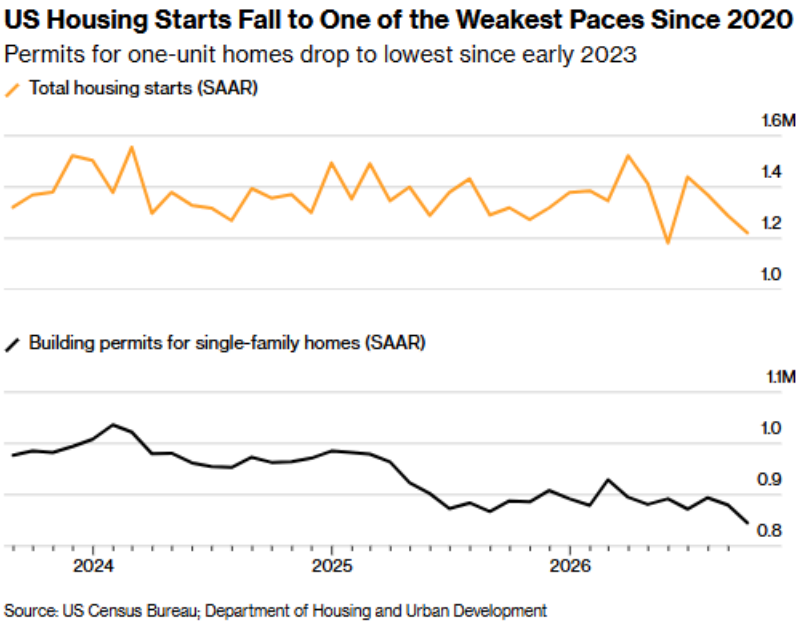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거듭 주장하면서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111를 돌파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이란 부통령은 "안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해협 내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후티 반군의 사우디 타격,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전 미-이란 합의 타결 가능성이 낮아진 점을 꼽았다.

기사

[주택]

Bloomberg: US Housing Starts Fall to One of the Worst Paces Since Pandemic
미 미국 주택 착공 건수, 팬데믹 이후 최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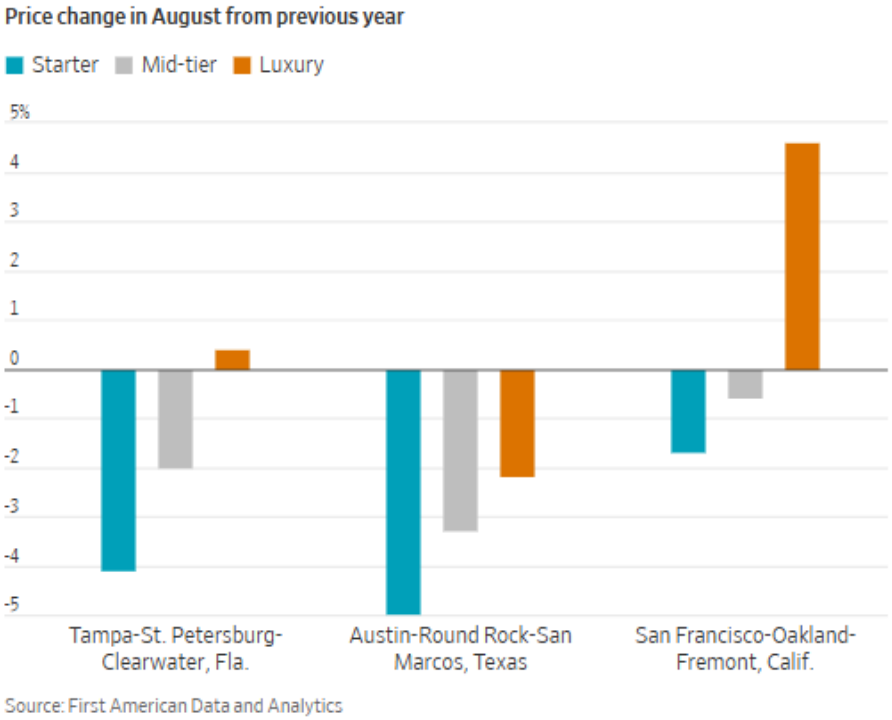
-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5.2% 감소한 연율 122만 가구를 기록했다. 4개월 만에 최저치이자 팬데믹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
- 특히 단독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 모두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 구매력 점점 약해지고 있다. 주택 시장이 강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 심리(건설업 신뢰지수) 역시 14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기사

WSJ: America's New Housing Market Is All About Luxury—and It Runs on Cash
미 주택 시장은 부유층의 고급 주택만 고공행진

- 치솟은 모기지 금리로 일반 구매자들의 발길이 끊겼지만, 현금을 쥔 부유층이 몰리면서 고급 주택이 전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 관련 기관 퍼스트 아메리칸 조사에 따르면 미국 50대 대도시 중 33곳에서 고급 주택 가격이 저가형 주택보다 더 빠르게 올랐다. 특히 AI 열풍으로 신흥 부유층이 늘어난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 건설사들도 남는 게 적은 저가형 주택 대신 마진이 좋은 고급 주택 건설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Walmart Sweetens Subscription Plan to Win Online Shoppers
월마트, 멤버십 혜택 강화로 온라인 고객을 잡는다

- 월마트가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 등 경쟁사에 맞서 온라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월마트 플러스(Walmart+)'와 '샘스클럽(Sam's Club)' 멤버십을 묶은 연 120달러 통합 구독 상품을 출시한다.
- 두 멤버십을 각각 가입할 때보다 약 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조건이다.
- John Furner) 월마트 최고경영자는 향후 회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혜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YahooFinance: Amazon to hire over 300,000 holiday workers, up 20% from last year

기사

YahooFinance: Amazon to hire over 300,000 holiday workers, up 20% from last year
아마존, 연말 시즌 30만 명 채용… 전년 대비 20% 증원

- 아마존이 연말 쇼핑 대목을 대비해 미국 물류망 전반에서 30만 명 이상의 계절직을 채용한다. 유통업계 전체 채용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45만 개 미만)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20% 늘린 파격 행보다.
- 아마존은 계절직 시급을 평균 $20, 정규직 시급은 $24 수준으로 제시했다. 2027년 1월부터는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계절직에게도 주 $5부터 시작하는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 최근 물류 인력 임금 인상에만 15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 아마존은 정규직 평균 총보수(복지 포함)를 시간당 $32 이상으로 올려 잡으며 물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기사

[KMI 공급망 브리핑]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기뢰 충돌·미사일 공격에 에너지 공급 리스크

-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협 남쪽 제한 구역을 위반한 유조선이 기뢰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에 안불안의 책임을 돌리면서도 7일 내 재개방 제안이 유효하다고 덧붙였으나, 미국의 재공습이 이뤄질 경우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중동 지역의 군사적 연대도 급격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예멘 후티 반군이 정부군 훈련 캠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최소 53명이 사망하자, 이집트와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속되는 미사일 공격 위협으로 예정됐던 대면 투자자 서밋을 취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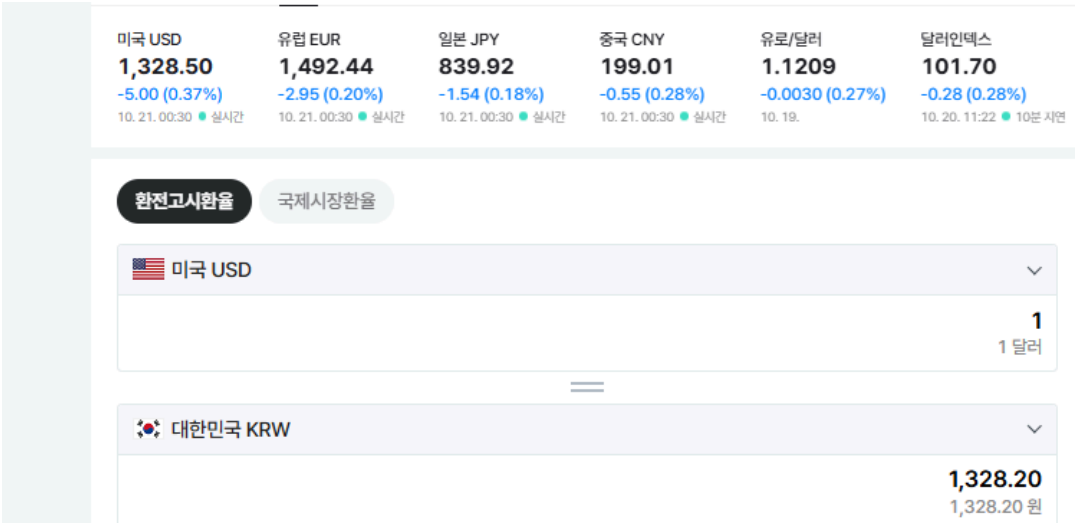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2,403.90	+437.3	+0.84%
US 500	7,712.30	+21.5	+0.28%
Dow Jones	52,456.05	+490.02	+0.94%
S&P 500	7,712.56	+21.83	+0.28%
Nasdaq	26,454.29	+23.40	+0.09%
S&P 500 VIX	17.96	-0.48	-2.60%
Dollar Index	101.53	-0.256	-0.25%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28/32	5.430	-0.039
10-Year Note	4.625	2/32	5.108	-0.031
7-Year Note	5	3/32	5.008	-0.045
5-Year Note	5	1/32	4.923	-0.019
3-Year Note	4.875	0/32	4.858	-0.015
2-Year Note	4.75	0/32	4.776	-0.004
1-Year Bill	0	0/32	4.464	-0.011
6-Month Bill	0	-4/32	4.372	0.003
3-Month Bill	0	0/32	4.191	0.008
1-Month Bill	0	-1/32	3.991	-0.021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